

“한국 백화점엔 명품만 가득 실 공간이 너무 없어요”

“한국에서 쇼핑은 물건을 구입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트렌드는 쇼핑과 여가생활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소매유통 부문(쇼핑센터) 개발 파트너로 참여 중인 '터브먼 아시아'(Taubman Asia)의 모건 파커(Morgan Parker) 사장은 27일 “명품 매장으로 가득 찬 한국의 백화점은 고급스러운 실내 장식에 비해 앞서서 실 공간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터브먼 아시아'는 1950년 설립된 미국의 프리미엄 쇼핑센터 개발 회사인 '터브먼 사(社)'의 아시아 담당 자회사이다.

파커 사장은 “송도국제업무단지에 지어지는 쇼핑센터는 쇼핑과 오락, 여가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쇼핑도 강 위에 물(水)이 흐르듯 편안하게 흘러가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쇼핑 공간에서 여가를 즐기며 많은 시간을 보내야 매출도 자연스럽게 늘겠지요.”

송도 쇼핑센터는 기존의 고층 백화점과 달리 2층의 높이에 사방으로 탁 트인 공간으로 설계됐다. 멀티플렉스영화관, 실내 스케이트장, 1200석의 푸드 코트가 들어서는 동시에 건물 지붕에서 자연광을 그대로 통과시켜 소비자들이 마차 야외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도록 했다. 11만㎡ 규모의 대형 공간에 150개 전문 브랜드가 입점한다.

파커 사장은 호주의 본드대학(Bond University)을 졸업하고 맥쿼리은행(Macquarie



Bank) 국제자산관리 담당 이사,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 아시아본부 부동산 투자·관리 담당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한국 쇼핑물사업에 대해 밝게 전망했다. 파커 사장은 “한국은 중국·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쇼핑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송도 쇼핑센터를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한국에 더 많은 쇼핑몰들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원삼 기자 wshong@chosun.com